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35: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골로새서 3:12)

발행처: 대한예수교 회충현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5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진권

제1회 전국찬양대지도자 강습 및 수련회

만방에서 올려날 예수님 찬양의 아름다운 축복

112개 교회에서 209명이 수료 · 은혜의 감격 넘쳐



수혜의 이름을 예수 사람으로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금번 행사에도 놀랍고 풍성하게 임했다. 본 교단에 소속된 전국의 중소 교회 찬양대들을 예수 사랑으로 섬기고자 시작한 제1회 전국찬양대지도자 강습 및 수련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총과 감격으로 넘쳤다.

금번 행사에는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로부터 112개 교회 214명(수료자는 209명)의 찬양대 지도자 및 관계자들이 참가하여 찬양하는 자의 영성과 실재에 대한 풍성한 가르침과 배움을 나누었다. 이들 중에는 목회자 내외가 찬양대원들과 함께 참가하여 성실하게 강강한 교회가 있었는가 하면, 아직 찬양대가 구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참가한 교회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찬양의 정신과 원리에 대한 강의에서부터 찬양이론과 실제에 대한 강의, 분반하여 진행된 실기 수업, 그리고 본 교회 찬양 연습 참관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내용들로 진행된 금번 강습 수련회에 대하여 대단히 만족해 하였다. 특히 모든 순서를 마감하는 금요집회에 모두 참석하여 참가자 중 한 사람의 지휘로 찬송가 '나 주의 도움받고자'를 특별 찬양으로 드리면서 총현의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는 기쁨을 나누기도 했다. 금요집회 후, 참석자들

은 감동과 감격, 그리고 헤어지는 아쉬움의 눈물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그들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해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행사가 한국의 중소 교회 찬양대들을 섬기는 너무나 시의적절한 섬김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이 행사가 계속되기를 간곡히 당부하였다. 그리고 찬양대원의 영성에 대하여 특강을 한 김성관 위임목사를 비롯하여 최선을 다해 명강의를 펼친 강사들, 그리고 여러 가지 참주들을 성실하게 강강한 도우미 성도들의 손길들, 특히 저렴한 참가비를 헌금과 사랑으로 강강한 본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였다. 총현의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본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통해 현실적인 여건상 배움의 기회들을 충분히 가지기 어려운 중소 교회들을 겸손히 섬기는 일들을 앞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와 사랑으로 지원해야 하겠다.

평신도 단기선교사 훈련과정

신현현는 중

9월 5일 저녁 7시 베다니홀에서 성경연구원과 함께 개강예배를 드리게 되는 평신도 단기선교사 훈련과정 강의는 9월 12일(토)부터 시작된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선교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되는 강의는 선교위원회의 지도를 맡은 이종수 목사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 내용은 성경적 선교신학 등 총 11과목이다. 그리고 그밖에 언어과정(영어, 스페인어, 방글라데시어, 중국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선교위원회에서는 많은 성도들 특히,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신청 문의는 선교위원회(교한 356번 심진경 간사)로 하면 된다.

98년도 제5차 성찬식

다음주일 1-5부예배시

98년부터 성찬식을 연 6회 각 홀수 달 첫주에 실시기로 한 예배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교회는 다음 주일에 제5차 성찬식을 실시하게 된다.

성도들은 경건한 마음과 기도, 깨끗한 생활로 준비하여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을 맛보는 성찬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98 선교보고대회

9월 10일 갈릴리움

올 여름 단기선교 사역 및 선교위원회 선교 사역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보고하는 '98 선교보고대회가 9월 10일(목) 저녁 6시 30분에 갈릴리움에서 거행된다. 선교위원회에서는 총현의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선교간담자 및 단기선교 후원자, 그리고 선교 관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전체 순서는 식사와 예배, 사진전시회 및 비디오 상영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권사의 수련회

9월 3, 4일

권사회는 9월 3, 4일 양일에 걸쳐 갈릴리움에서 권사회 수련회를 갖는다. 강사는 김성관 위임목사와 이두란 전도사 그리고 이승수 목사 등이다. 권사회원들이 금번 수련회를 통해 기

도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의 용원이 있어야겠다.

'98 성경연구원

많은 성도들의 참여 기대

개강예배는 9월 5일 오후 7시 베다니홀

주강성경공부(크로스웨이, 창세기, 여호수아, 사사기, 골로새서, 로마서, 데살로니가전서)와 직분자 양육반(권사 구역장 권철만, 남성구역장반, 안순집 사반), 그리고 교사양성부와 찬양대원 양성부가 9월 5일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일제히 시작된다. 주강성경공부는 9월 8일부터, 직분자 양육반은 9월 9일부터, 그리고 교사양성부와 찬양대원양성부는 9월 6일부터 강의를 진행한다. 성경연구원에서는 어려운 시절일수록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교육국(교한 474번 이순주 자매)으로 하면 된다.

교회학교 가을심방 시작

각 교회학교 부서들은 9월 한 달을 학 생 심방 기간으로 정하여 심방계획을 작성하고 학생들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교회의 미래를 심는 이 아름다운 발걸음들이 온 성도들의 지원과 사랑과 기도 가운데 계속되고 결실할 수 있도록 교회학교에 참석하는 자녀를 둔 부모 및 성도들의 성실한 기도와 관심이 절실하다.

정기감사

1. 감사 대상 부기:
각 위원회 및 산하 각 부서와 기관
2. 감사 실시 기간:
1998. 9월 중 매주일 9:00~16:00
3. 감사 장소: 선교관 404호 감사위원회실
4. 준비 서류:
1) 당회기간의 시산표(부서장 확인)
2)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원부, 보조장)와 증빙서류 및 예금통장
3) 기타 감사에 필요한 서류
5. 감사 기관: 감사위원회



고 한명옥 원로장로 교회장

지난 8월 22일 한명옥 원로장로가 소천하였다. 고 한 장로는 부산 동일교회 시절부터 우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54년에 사리시자, 59년에 제5대 장로로 임명받았고, 생전에 교회학교 부장, 재정위원, 건축위원, 통산관리위원, 장학위원, 인사위원으로 교회를 섬겼었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봉재 권사와 남 3녀 등이 있다.



김 창 인 목사

술에 취한 사마리아가 당할 심판에 대한 예고 (이사야 28:1-4)

"성령으로 정신 차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으로 정신을 차리는 신자가 되어

바른 말을 하고 해야 할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사마리아가 심판을 당할 이유는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 이어와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강이 기름진 꿀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1절)

이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성은 면류관과 같이 아름답고 호화찬란한 성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기름진 꿀짜기 꼭대기에 세웠는데 궁궐은 상아로 꾸며서 찬란하고 도한 견고하였습니니다. 이런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취했기" 때문입니다.

(1) 취했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취한 자'란 술에 취했다는 말도 되고, 명에나 권세나 물질에 대한 욕심에 취했다는 말도 되고, 세상 향락에 취했다는 말도 됩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12지와 가문대 전쟁을 제일 잘하는 강한 족속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혼련을 받아 정신과 육체가 혼자서 도 백 사람을 당할 수 있을 만큼 권세가 당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백성을 사랑하면서 원수를 잘 막았던 힘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네 힘을 믿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약한 백성을 괴롭히고 원수와 싸울 준비를 하지 않고 못만 짓만 하였습니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힘에 취하여 정신을 잃어버린 에브라임의 모습입니다.

(2) 취한 자의 행동이 어떠한가

① 말을 제멋대로 합니다.

첫째로, 제 자랑을 늘어놓습니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기도를 누구보다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는다" 이러면서 자랑을 많이 한다면 자기 만족에 취하여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둘째로, 취한 사람은 잘못된 일에 대하여 사과의 말을 할 줄 모읍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남에게 그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정신을 차린 사람은 자랑하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제 자랑이나 하고 회개가 없이 명개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무엇에 취해 버린 사람입니다.

셋째로, 취한 사람은 남을 저주하기를 잘하며 위선자 없고 원망뿐입니다.

에브라임은 취하여 자기의 강한 힘과 많은 재산을 자랑합니다. 그들은 못된 것을 행하고 또 책임을 약자에게 뒤집어 씌우고도 양심의 가책조차 없습니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가 없고 사

람 앞에 용서를 비는 겸손이 없습니니다. 이렇게 에브라임은 취하여 말을 함부로 하고 도신도 뒤집어 엽습니니다. 노도와 같이 불어 타치는 광풍 앞에는 남안한 것이 없습니니다. 거대한 앗수르 군대가 광풍이 불어오듯 밀어닥칠 것입니다.

취한 사람의 걷는 모습은 비틀거립니니다. 비가 오는 날에 취한 사람이 길을 가는 것을 보면 도로 흠뻑 젖어 있어 있습니니다. 또 취한 사람은 길을 잃게 가지 않고, 가서는 안될 곳으로 갑니니다. 여자에게 취한 삼손이 가지 못할 기생의 집으로 갑니니다. 도박에 취한 사람은 공금을 가지고 도주관으로 갑니니다. 향락에 취하면 예배당에 가야 할 사람이 극장으로 갑니니다. 길을 잘못 갑니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취한 자의 길을 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신을 차린 자의 길을 가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취한 자는 길을 바로 갑수 없습니니다.

② 상하좌우를 분별하지 못합니니다.

취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서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고 할 것은 하지 않습니니다. 또 뒷사람에게는 반역하고 앞사람을 괴롭힙니다. 사람을 교제하는 면에서도 사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합니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육에 취한다면 저 돈이나 권세에 취해서는 안됩니다. 삼손이 여자에게 취하여 사귀지 못한 블레셋의 기생을 가까이 했습니니다. 사울 왕은 권세에 취하여 사귀고 구국공신인 다윗을 죽이고 10여년간 다룬 다녔습니니다. 거짓 우다는 돈에 취하여 성령인 예수님을 팔아 먹었습니니다. 취한 자는 이렇게 분간을 못하고 무서운 것을 합니니다.

③ 책임 이행을 하지 않습니니다.

술에 취한 사람에게 무슨그릇을 지워 놓으면 비틀거리다가 깨뜨리는 것처럼 세상에 취한 사람에게서는 중한 책임을 맡겼다가는 일 자체를 망치게 됩니다.

2. 사마리아가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 어떠한가

"... 기름진 꿀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해가는 꽃 같으니 하였을진저 또 라जे 같은 것 있기는 자가...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라" (1-2절)

"강하고 힘 있는 자"는 주께서 준비하신 앗수르입니다.

(1) 우박이 쏟아지는 것처럼 심판을 당합니니다

우박이 쏟아지면 무엇이든 망가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앗수르 군대를 통하여 우박처럼 일시에 쏟아질겁니니다.

(2) 광풍이 불어 오는 것처럼 심판을 당합니니다

거센 폭풍은 거대한 배도 뒤집어 었고 도신도 뒤집어 엽습니니다. 노도와 같이 불어 타치는 광풍 앞에는 남안한 것이 없습니니다. 거대한 앗수르 군대가 광풍이 불어오듯 밀어닥칠 것입니다.

3. 사마리아가 심판을 당할 결과가 어떠한가

(1) 면류관이 꽃처럼 떨어져 발에 밟히게 됩니다

"...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라...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2, 3절)

'면류관을 땅에 던진다'는 말은 자랑하고 뽐내던 것을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망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권세와 명예가 밟히고 재산은 날아가서 고생을 하다가 죽습니니다. 그러나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에는 면류관부터 밟힙니니다.

에브라임의 면류관은 수도인 사마리아인데 이곳에서 이곳부터 망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원수를 원수로 하여금 짓밟아버리도록 하셨습니다. 말입니다.

(2)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이 열은 먹혀 버리게 됩니다

"그 기름진 꿀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잔해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니라 보는 자가 그것을 볼도 열려버리나 마르리로다" (4절)

참 묘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무화과는 잘 익으면 달고 향기롭고 맛있게 좋습니니다. 그런 무화과를 가꾸는 농부가 사슴타리를 두르고 문에 파수꾼을 세워 지키게 하여 사슴은 물론 짐승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니다. 그러나 무화과 열매가 잘 익습니니다. 특별한 여름 전에 일찍 익는 무화과가 있는데, 이것은 몇 날 되지는 않더라도 사슴의 눈에 잘 띄어 갑니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죽고 무화과 파수꾼의 율타리가 불에 타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니다. 그래서 무화과 파수꾼에게 제, 제, 소, 말이 마음대로 뛰어나가게 되었습니니다. 이때에 원수들이 무화과 파수꾼에 들어서니까 차를 익은 열매가 보힙니다. 그러니까 "야, 여기에 무화과가 달렸구나, 이것 바라"하면서

제각기 먼저 따서 먹습니니다.

'열은 따서 먹으리로다'는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성은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처럼 아름답게 잘 꾸며 놓았습니니다. 온금보와, 상아가 가득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가 에브라임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멀리서 볼 때마다 "야, 저 성에는 온금보와가 가득 있겠지. 그러나 율타리가 있고 파수꾼이 지키고 있으니 빼앗을 수가 없어" 합니다. 그러다가 파수꾼이 죽고 율타리도 타버려 없어지면 제각기 먼저 달려가서 처음 익은 무화과를 따먹는 것처럼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부자들과 권세자들이 쌓아 놓은 보화들을 원수들이 와서 먼저 빼앗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 교회와 나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최상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서 떠나면 마귀가 마음대로 출입하는 마귀의 소굴에 불과합니니다.

4.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에브라임이 취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니다. 심판이 임할 때에 우박처럼 내려 붓고 광풍처럼 불어 오고 큰 물결이 무섭게 날치와서 삼켜 버리듯이 망하겠다고 하면서 이시야 선지자는 사마리아 성을 보면서 웃습니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지 20년이 못되어 에브라임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앗수르 군대의 말발굽에 밟혀서 황무지가 되었습니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섭습니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을 지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니다.

둘째로,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하여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사마리아 성이 정신을 차렸더라면 앗수르에게 당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니다. 앗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했다가 그렇게 훌륭하던 상아 궁궐이 무너지고 사자와 짐승만 득실거리는 황무지로 변하게 되었습니니다.

셋째로, 성령으로 정신 차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으로 정신을 차리는 신자가 되어 바른 말을 하고 해야 할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김성관 목사

믿음과 고난의 선물

(빌립보서 1:27-30)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입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은 없습니다. 믿음과 고난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 뿐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도 받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하나님을 뵈을 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의 기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마음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그리고 구원과 부활과 천국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분의 일체로 말미암아 큰 감동을 받았습니

다. 따라서 그가 기록한 모든 권면과 격려의 말씀은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살아 계신 임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난과 근심 중에도 기뻐함으로 평강으로 안정된 자신의 심령을 보여 줍니다.

믿음의 기쁨

사도 바울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에 의해 삶을 자신있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선행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단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얻어지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소유한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는 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조율하여 주관하고 간섭하지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고난

이 기쁨에 대한 이해는 참으로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선물 없이는 항상 고난의 선물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멸시하고 대적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므로 십자가에 겹손히 못 박혔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중심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그리스도

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고전 3:23). 그리스도를 인도했던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도 인도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제쳐두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셨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일심으로 서는 믿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27절). 이 구절은 단호하고 강한 어조의 단어 “오직”으로 시작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만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목표요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자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고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심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먼저, 일심으로 서서 노력하고 힘쓰고 고난을 인내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고립되어서는 안됩니다. 신앙은 혼자만의 도합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 지체들이 왕이신 주님을 한 몸으로 만나 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원수 마귀와 싸웁니다.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힘을 키워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하여 싸웁니다.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모든 교회와 개개인에게 머무르시며 우리를 결속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성취하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두려움이 없는 믿음

바울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또한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믿음과 그와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명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명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28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십니다. 빌립보인들의 담대함은 그들의 구원과 대적자의 멸망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들의 승리는 우리에게도 승리의 확신을 줍니다. 이것은 생각뿐 아니라 실천의 문제입니다. 생각과 실천, 마음과 몸은 떨어질 수 없으며 늘 함께 일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로 단결된다면 한 영혼으로서 함께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욕구를 감찰하시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쁨을 소유한 믿음의 증인을 만드십니다. 담대함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담대함에는 기쁨과 고난을 건디는 것도 포함됩니다.

고난을 겪는 믿음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29절). 믿음과 고난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 뿐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도 받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하나님을 뵈을 것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과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30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처럼 그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다른 환경 속에서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과 약, 하나님과 사탄, 정의와 죄의 대립과 싸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두번째 선교여행 때 빌립보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가졌던 그는(1:7) 그들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과 권능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담대히 외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1:21). 적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리를 옮겨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인해 온 충현의 성도들이 한 마음, 한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난까지도 귀히 여기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합함과 죄악으로 인한 철저한 무능을 아시고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은사를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 속에 모시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난을 이겨내려면 강한 믿음과 굳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 보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함하여 충현과 회가 동일한 영혼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같은 뜻대로 향하여 정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선물이 믿음, 그리고 고난까지도 더욱 귀히 여깁시다. 아멘. ■

주님의 손이 이끄신 여름 사역 돌아보기

—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한 살아 계신 주님 —

농어촌 사역

무당과 점쟁이까지 교회로!

2교구 농어촌 전도

문 상 식(전사, 2교구)



그 동안 며칠 장대비를 뿌리던 하늘이 맑게 개이고 날씨가 주창하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사하면서 출발했습니다.

미산교회가 위치한 마을이 62세대의 주민 중 4세대나 무당과 점쟁이 직업을 가진 마을이라 생각하니 주민들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야 할 사명감이 새삼스럽게 마음 속에서 솟구치는 듯 하였습니니다.

교구 지도 목사님께서 “전도대는 영적 전쟁에 임하는 전사들이라”는 말씀으로 “기도로 확실하게 무장하자”고 강조하셨고 우리 모두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전념했습니다. 미산교회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고 즉시 의료전도팀, 이·미용전도팀, 침술전도팀, 축조·노방전도팀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일사분란하게 열심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축조·노방전도팀은 2인 1조로 7팀이 미산교회 교인들과 혼성팀을 이루어 기가호호를 방호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입술에 전할 말을 넣어 주셨고 끈기있게 말씀을 전하며 교회로 나를 찾는 유력할 때가 되어 오셨지 않았으며 어떤 대원은 주민들이 쉽게 용락할 때 우리의 준비 기도를 들으신 성령의 강권적 역사하심을 눈에 신하게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집 남편은 감동받은 오후에 오셔서 의료팀, 미용팀을 받게 될 전도 설치를 도맡아 해 주시는 열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첫째날 저녁에 모든 팀들이 진지하게 씨를 뿌리고 모야놓은

영혼들을 향하여 목사님이 복음 진리를 쉽게 풀어 말씀하시고는 결산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둘째날 저녁에 29명이나 결산자 카드에 기록하였고 까다롭게 거부하던 주민, 다른 주민의 이목이 신경 쓰인단 주민들이 나와서 카드를 작성하도록 용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째날, 둘째날 밤 평가회에서 새로운 전략을 세우며 즐거움 보고 기도 평가를 진행하는 대원들은 싱글방들이었습니다. 무당이 교회에 와서 파마를 하고 점쟁이가 저녁 집회까지 나왔다는 보고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회에는 이런 류가 날 수 없습니까?”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였습니다. 기쁨의 “환려후야”였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맘을 본받으며 같은 마음을 갖는 전도의 행복을 체험하였습니다.

말은 자의 사명은 충성

8교구 농어촌 전도

정 금 연(전사, 8교구)

강원도 춘천시 남면 추곡리 전원교회에 도착. 마을을 둘러보니 이 동네에서 얼마나 추수할 수 있을까 하는 착상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전원교회에는 83세의 권사님과 집사님밖에 적분자가 없었다.

그리고 뽕 사일로 집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어찌할까 하다가 목사님께서 이장집을 찾았고, 그곳에서 방송을 통해 교회에서 이·미용을 무료로 해주고 있으니 교회로 나오라고 안내를 했다. 3명이 이·미용봉사자들이 마을 사람들의 머리 손질을 계속했다. 첫날 저녁집회에는 43명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회를 마쳤다. 집회 후 친교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을 사람들이 마을 문을 열어 놓고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기로 약속했다.

이튿날에도 전도는 계속 되었다. 대원들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말은 자의 사명은 충성”이라는 성경 말씀이 떠올랐다. 매우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 것을 더 필요없는 이물같이 열심을 내어 움직였다.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며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것이로구나 깨닫는 순간 눈물이 나오기까지 했다. 83세 고령의 전원교회 권사님은 큐파티스관절염으로 두 발이 모두 아파나 있었다. 양발을 벗고 발을 보여 주셨는데 눈 뜨고는 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권사님께서는 아픔도 잊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전도대원에 기꺼이 참여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몸으로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내 자신이 부끄럽기만 했다.

둘째날 저녁 민기로 결산한 31명의 마을 사람들과 대원들이 서로 손을 잡고 안아 주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다과회를 열었다. 주님을 영접한 그들의 얼굴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다.

낙도 사역

남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해 줄 때

오 상 균(대학부 2학년)



낙도 사역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우리 팀은 전담 교도에게 다량도도 떠났는데 7시간 정도 비스를 타고 녹동이라는 곳에 도착한 후 다시 1시간 20분 정도 배로 들어갔다. 갈매기들이 우리를 맞아 주었다. 다량도라는 섬에는 12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마침 멀지않아 배라 주민들이 더 많았다. 그곳에 교회는 있었지만(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그곳 주민들이 사는 곳이 똑같았다. 간판만 다량도 교회라고 붙여 있었다.) 사역자는 안 개했다. 물론 일주일마다 한번씩 오시는 목사님은 개시켰지만.

사실 처음에는 낙도사역이 낯설고 두려웠다. 그러나 4월 5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생생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셋째날이었다.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비가 오면 낙도 사역에 차질을 빚게 되는데’라는 걱정을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 주신 이유가 있었다. 그곳에는 멀지않아 한창이라 주민들이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비가 내리는 바람에 오전 시간이 남

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청년 한 명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다. 그 통내에서 만나 교회로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두번째로 우리의 헌신을 통해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주민들이 하고 있는 멀지 고르는 일, 멀지 멀리고 멀지 포장하는 일 등을 헌신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보통 6시간 정도를 앉아서 일했는데 허리와 다리가 너무 아파서 ‘내가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머리 속에서 스치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었다. ‘주님은 내 뒤로 로마 방정들에게 채찍을 맞고 사자들에게 침뱉음을 당했잖나 난 이 조그만 고동에 쓰러지고 하더니 ...’ 그 이후에 난 웃으면서 일을 할 수 있었다. 일을 하면서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성실하고 착하구먼 ...”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너무 기뻐했다.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지 않고 남들이 내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것보다 값진 것이 있을까?’ 우리는 그들과 일하면서 예수님을 전했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세번째로 우리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축조 전도와 청년 집회를 하면서 너무나도 빠져버리게 되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라고 느꼈다. 섬주민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알릴 때 그들 대부분은 인정을 했다. 무엇보다도 청년 집회를 통해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알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없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축복하소서”로써 그들을 축복할 때 또한 그들을 붙잡고 기도할 때 청년들이 흘리는 눈물은 어떠한 보석보다도 값비싼 것이었다.

네번째로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낙도 사역 기간 동안 요한일서를 묵상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주셨다. 이는 사랑의 결단을 내렸다. ‘형상 옷을 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기로 그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 버리겠다’고.

낙도 사역은 여러고 성의 활력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 이번 낙도 사역에서도 그랬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낙도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이 기간이 7일이 걸릴지, 7년이 걸릴지, 70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번 낙도 사역을 통해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계시고 예수님은 진짜로 역사 하셔서 임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내 삶 속에서 이 사실만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같은 마음을 갖보는 전도의 행복을 체험하였습니다.



이 땅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오 미 정(청년1부)

죽도 사역팀 10명을 태우고 달려가 뱀 배의 엔진 소리가 점점 작아짐을 들으며, 이곳이 바로 우리가 사역할 땅임을 깨닫고 마음을 바라보았다. 파랑, 주황 등의 화려한 빛깔과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지붕들 사이로 하얀 십자가 담이 보이고 교회의 반대 편으로 잘 정리된 커다란 청기와집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곳이 마을회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죽도에서는 2년에 한 번씩 큰 곳을 하는데, 그곳이 바로 무당을 사다가 곳을 하는 신당이었다.

마을 입구를 들어서며 우리 사역팀은 마을 어른들을 뵈며 대마다 큰 소리로 인사를 드리며 우리가 속박할 죽도교회를 향했다.

사역 첫날! 우선 마을 어른들에게 우리의 도약을 알리기 위해 큼직한 수박과 기타를 들고 마을회관으로 향했다.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어른들, 옛일을 추리시는 어른들에게 인사를 드리며, 수박을 잘라드리고, 옛일을 함께 수려드리며 수요일에 있을 마을잔치에 꼭 참석하시라고 권했다. 또 함께 찬양을 드렸다. 찬양이 끝난 후 우리를 위해 유일하게 큰 박수를 쳐 주신 분은 죽도교회의 집사님이셨다.

사역 둘째날 오후 마을 주민들이 배를 타고 들어와 저녁을 먹고난 이후의 시간을 이용해 우리는 준비해간 선물과 다남배에 있을 마을잔치 초청장을 들고 한 가정, 한 가정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방문에 마을 어른들의 반응은 그리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어른들이 우리가 준비해간 선물과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고, 마을잔치의 초대에 응해 주시는 반면에 선물받기를 강하게 거절하시며 교회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드디어 사역의 마지막날. 어른들을 모시기 위해 교회를 장식하고, 죽도교회 집사님들과 음식을 만드는 등 분주한 준비시간들이 흐르고 마을잔치를 진행할 시간이 되었다. 잔치시간 1시간 전부터 우리 팀원들은 마을 어른들을 모셔오기 위해 마을회관과 가정을 방문했다. 그러나 그분들의 도덕적으로 친절해 보이는 모습 뒤로 단련된 마음은 쉽

게 열리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몇 분 안 되는 마을 어른들과 죽도교회의 열두 명의 성도님들과 마을잔치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사역팀원들 중에서 3명의 지체가 간증을 하게 되었다. 세 분의 간증을 통해 우리는 정말 살아 계신 하나님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방법이지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고 때때 주심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번 사역을 통해 죽도교회 성도님들의 헌신된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사마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죽도의 가족,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참사랑으로 본이 되는 것이 그들의 영혼을, 죽도를 건지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떠나오는 배의 뒷머리에서 죽도를 바라보며 유난히 눈에 띄게 크고 잘 정리된 큰 신당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기도를 드렸다. '이 땅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수해복구 사역

의정부에서 함께 한
예수님의 지체들

고 정 위(집사, 7교구)



8월 14일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술렁거릴도 없이 허둥대며 교회에 도착하니 벌써 3대의 버스에 의정부로 향할 봉사자들이 복자 있었다. 나는 다른 두 명과 함께 자리가 없어 버스 뒤편 바

에 앉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겨 주신 일이 어떤 것일까? 하는 기대로 흥분되었다.

일을 찾아 이곳저곳을 다녔던 중 하나님에 예비한 곳에 이르렀다. 양말 공장이었다. 땅 바닥에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흙더미 양말, 실들로 뒤덮여 있는 모습이 우리들을 놀라게 했다. 납품만 하면 될 완제품들이었다. 누가 뭐랄 것 없이 우리 팀 9명은 더러운 양말을 비비고, 행구고, 탈수하고 3층까지 올라가 널었다. 맘이 비 오듯 했고 다리도 후들 거렸다. 너무나 충격이 컸는지 우리들이 갔어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주인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같이 일을 하기 시작했고 음료수도 주었다.

거의 지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협력자를 보내 주셨다. 다음 아닌 건장한 대학생 3명과 그들의 스승인 청년 1명이 있었다. 인천에 있는 한교회에서 봉사하러온 학생들이었다. 다니는 교회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 13명은 주님의 지체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될 소중한 지체들이었다.

일개미처럼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지체들. 너무나 호홉이 잘 맞았다는 환상의 한 조였다. 우리들의 일은 청년들이 움으로써 몇 곱은 빨라졌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자는 역시 남자의 갈빗대임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우리들의 남편들을 더욱 존중하고 사랑하자고 다짐했다.

4시가 넘으면서 빗줄기가 굵어졌다. 철수하자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었다. 우리는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양말로 산더미를 이루던 그곳을 거의 깨끗한 평지로 만들었다.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이 있었다. 비로 옷이 다 젖었다. 주인과 손을 잡고 집사님이 기도를 했다.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강을 얻고 힘내세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주인 부부를 위해 우리 13명은 주님에게 그곳에 보내시어 도구로 사용하셨다.

너무 감사하다. 여주인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기도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떠나기 전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기도를 해 줄 때 눈물을 닦으며 "엄마 다녀오세요"라고 인사해 준 존슨(10), 예슬(8)에게 고맙고,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의 저녁을 챙겨 주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들어온 나를 반겨준 남편에게 감사하 드린다.

수련회

아멘찬양대 · 오케스트라
수련회를 다녀와서

김 경 환(집사, 아멘찬양대원)

지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충현 기도원에서 있었던 아멘찬양대의 하계 수련회를 통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IMF로 인해 모든 경제가 어려울 때에 돌란리로 더욱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다. 아멘찬양대, 오케스트라 단원들 모두가 무거운 몸과 마음으로 기도원에 올라 시간시간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다. 힘찬 찬송을 부르면서 때때로 내리는 비를 맞으며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면서 몸과 마음을 수양하고 단련하는 좋은 시간들을 보냈다.

2박 3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곳을 제외한 다른 곳들은 많은 시간들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는지 때문이다? 아마도 뉴스로 보고 듣고 한 세상의 재난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엄청난 비가 내릴 때는 두려움도 엄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말라 하셨으니 이때가 간절히 기도할 때이며 믿음에 더욱더 힘을 때가 아니겠는가.

믿는 나무터 잘성해야 할 것이다.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무거운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생활은 많은 시간들이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면서 감사기도를 드린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조 정 숙(장년1부)

* 장년부 여름수련회 프로그램 중 천로역정 유스쓰기 시간에 눈물 흘리며 쓴 유서입니다.

사랑하는 딸 경은, 아들 정찬, 고마운 남편에게
1990년 9월 병실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 생명을 연장시킨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성경책 톰슨 성경(1997), NIV 성경(1998)을 자손 대대로 간직하고 평생 하나님 믿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지면 관계상 원고 내용을 줄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국2선 선교 보고

중국을 주제로 - Love China



▲ 중국의 아침은 유난히 분주하다. 이처럼 복음에도 가족이 붙어 중국이 복음의 도가니가 되는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고등부-C

8월 7일 두렵고 떨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중국으로 떠났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는 기차에서 한 가정에게 예수님을 전했다. 그 가정에서 쌍둥이 자매가 있었는데 그 중 동생인 Ree의 마음이 열렸다. 너무 감사했다. 우리가 내릴 때쯤에 나는 나와 동갑인 Wee라는 친구를 만날 수 있었다. 그의 주소를 받고 나도 주소를 주어서 우리는 편지를 하기로 약속했다. 우리는 조별로 헤어져서 사역을 했는데 우리 조는 많은 대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과 친구가 되었다. 중국 공산 당국의 많은 감시 때문에 구체적인 복음 계획은 하지 못했지만 작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기도롭게 중국 장기사역을 준비하고, 우리 중국2선부를 하나로 모으고주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1부-O

주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중국사역을 마치고 난 지금의 마음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중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지도 많이 사랑하신다는 감격에 차 있다. 그전 까지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중국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의 사람들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면 지난날수록 하나님께서는 중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청년1부-J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역이었다. 우리의 부족함을 오히려 낮아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낙담을 새로운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일에 우리는 삼자교회와 처소(가정)교회로 가서 예배를 보게 되었다. 처소교회에서 우리는 뜨거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 땅의 황두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공물을 베푸시는 주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흘러나온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또 다른 기쁨의 기도였다.

청년1부-J

'주여 내가 무엇이란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서 쓰시나이까'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중국 성령행전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다. 준비할 때부터 세밀한 것 하나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임을 확실히 느꼈다. 청도공방에 착륙 직후 발발 등 공안요원의 얼굴은 너무나도 굳어있었다. 이것이 중국에 대한 나의 첫인상이었다. 중국이란 나라, 못살아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얀 복음이 부재한 듯하여 안타까웠다.

고등부-B

단기선교 선교사가 되기 위해 헌신한 나에게도 커다란 도전! 단기선교에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작던 겨울방학 동안 기도를 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 주셨고 나를 거대한 나라 중국으로 보내기 위해 준비시켜 주셨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쌍둥이 손녀딸들을 만났다. 우리들은 할머니에게서 중국인요도 배웠고 그 꼬마들과 놀면서 그들에게 할부모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그들이 내리려 하자 팀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꼬마들에게 기도해 주며 예수님에 대해 들려 주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중국 S시에 도착했다. 주일 아침에 열세명 남짓한 가정집에서 사모님 명의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작은 나무 의자에 꼬르륵 앉아 그곳에서 인도하시는 분의 말씀을 듣는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이 얼마나 말씀에 갈망해 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조는 G대학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지나가는 두 명의 남자 대학생들을 만났다. 할지 못하는 중국어와 영어와 '바디랭귀지'를 섞어가며 대화를 하고 학교와 여러 곳을 소개받았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깨지 못한 채 단지 식사 대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알려 줄 수밖에 없었다. 매일 저녁마다 속으로 돌아와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함께 바다에 무릎꿇고 영혼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던 모습이 생각난다. 나는 중국을 떠나며 곧 선교하러 다시 오리라 하는 생각을 마음에 품었다.

청년1부-H

중국은 거대한 나라였다. 우리가 간 곳은 10%의 기독교인들이 삼자교회와 처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특히 처소교회는 말씀을 갈망해 하고 있던 자제를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하니



▲ 대원들은 주일 오전 조별로 삼자교회와 처소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

모임이었다. 현재 중국의 대학생들은 보길 원하고 느끼길 원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았어도 그것을 느끼고 있었고 그 사랑을 느끼며 감사해 했다. 어떤 사역이나 마한 가지겠지만 특히 전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중국인들의 속성으로 볼 때 중국인 사역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쌓아가는 신의 속에서 감당해야 할 것 이다.

고등부-H

처소교회 방문에서 나는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도 열악한 환경에서 강한 믿음으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에게도 너무나 큰 감동이었다. 우리는 너무도 편한 곳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믿는 데도 불구하고 강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오히려 겸손으로 감사했던 것이 너무 부끄러웠고 한편으로 감사했다. 나는 이런 깨달음 속에서 그들과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예배를 마친 후 그들의 이름없는 처소교회의 부흥과 그들에 대한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했다.

외국인근로자시역부

고기, 사키, 아가, 아니, 그리고 리후이준 이야기

외국인근로자시역부 여름 수련회에 참석한 몇몇 형제 자매의 사연을 소개한다.

인도인 고기

식달 전 공장에서 작업중 오른손이 절단된 형제. 공장 사장이 보상금 지급에 비협조적인. 아가 이후 그 공장에서 쫓겨나 숙식을 해결할 길이 없어 동료 기숙사를 전전하고 있음. 고기 형제에 비롯한 인도 형제들이 한국인들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 사키와 아가 거의의 모두가 교회를 등지고 떠. 무엇보다도 고기 형제를 이빈 수련회에 참 참가시키고자 본 부서 교사들이 백방으로 수소문 하였으나 거주지가 일정치 않아 직접 대면은 못하고 그 등의 동료들에게 수련회 초청장만 전달해 줄. 수련회 첫날 그가 딸을 비호도 흘리면서 기도원으로 올라옴. 한 동료로부터 수련회 초청장을 받고 곧지심에 결심하여 왔다고 함. 이후 3일간 성심히 수련회에 참가했으며 주일 출석도 지속적으로 하게 됨.

파키스탄인 사키

지난 5월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광주 일대에서 전도를 하던 본 부서 교사 한 명이 길에서 파키스탄 출신 사키 형제를 만난.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인사를 함. 7월말 다시 만난 자리에서 수련회 초청장을 주고 참가를 권유했으나 여의지 않음. 수련회 시작 하루 전 그 교사가 사키 형제에게 배별로 수련회 참가를 다시 권유함. 수련회 첫날 기도원으로 찾아옴. 때때를 들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함. 3일 내내 집회 맨 앞자리에 앉아 경청함. 수련회 이후 계속 출석하며 동료 세 명을 전도함.

파키스탄인 아가

몇 달 전 두 차례 본 교회에 나온 경험 있음. 강한 모델링 심금을 갖고 있음. 수련회 전까지 계속 만나지 못해 초청장을 파키스탄 동료들에게 맡겼는데 그것을 받고 기도원으로 찾아옴. 수련회 마지막날 지도 교사를 찾아와 변화된 심경을 고백함. "내 일생 동안 이번 3일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중

국인 리후이준

인도네시아인 아니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온 젊은 자매. 오랜 기간 몸이 좋지 않고 교회 출석이 양호하지 못함. 그래도 수련회에 삼일 동안 참석함. 찬양 시간에 모두가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일어설 기력이 없어 밖에 기도하고 앉아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함.

중국인 리후이준

중국 한국 출신. 언니 리후이리와 더



▲ 수련회 참가자들이 함께 전염을 부르는 모습.

불어 한국에 와 신앙 생활 시작. 공장에서 휴가를 받지 못해 수련회 기간 중 저녁에 들어왔다 새벽에 나감. 첫날 중국어와 한국어 나레이션에 맞춰 무언구 하트(Heart) 공연. 비록 초신자이지만 진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전하는 자매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함.

현실에 적합한 성경적 장례절차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기본적으로 유교적 관습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성경적인 장례절차를 찾아 정착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힘써 기울이지 않은 한, 혼합주의적인 장례문화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특히 신학자들의 성경적 방향 제시와 목회자들의 열심있는 돌리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례식 절차에 있어서는 사머니즘적 관습을 가진 불신자 식구들의 거센 목소리를 막아내기란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신자 어른을 모시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장례식 절차는 불편하고 복잡한 부담이다. 게다가 쓸데없이 까다롭게 지출되는 비용은 심각한 근심거리가 되기도 한다.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인색하게 군다는 소리를 들을까 염려되어

장비지출을 꺼리기도 어려울 형편이다. 또한 상가에서 벌어지는 술과 화부의 문화 등도 마음을 무겁게 한다. 화장을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이미 되되었음에도 한국적 관습에서는 여전히 꺼려지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 죽음이 영원한 안식을 향한 아름다운 출발이라는 인식을 견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신다. 성도는 죽음의 문을 넘어서서 존귀하신 하나님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쉬고 새로운 영생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장례절차도 이러한 관점에서 한가지씩 고쳐가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우리 교회 충현동산과 상호회에서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한 가지씩 개선해 가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장례예배, 하관절차, 이장식, 분분 설치, 위로예배, 식당 운영, 납골당 설치, 수의 및 장의품 사용, 조의금 전달 등의 문제에 대하여 계속 논의하면서 바람직한 방향들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할 교회 장례절차 전반의 실제



김여순

(장로, 7교구장 · 동산관리부장 · 상호회장)

오랜 역사의 흐름에서 이어져 온 전통 의례 중 장례 문제와 추모에 대한 예식 문제는 유교적 관습에 뿌리를 막고 있는 현실로 인해 꼭 기독교적 장례 절차의 기준이 세워져야 할 때이다.

충현동산을 이용하며, 충현교회 목사에 의해 장례예식을 치르는 성도 앞에 상세하게 충현동산 이용에 대한 문제와 장례식 전반에 관한 문제를 위임목사로 부터 성경적인 자문을 받으면서 충현동산 관리구장과 상호회 운영규정을 기초로 검토하여 이 난을 마련해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좋은 충현동산을 예수님 재림때까지 복음의 초소로 잘 꾸리고 소용 당한 가정의 장례예식을 하도록 상용 가운데서 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주지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부도덕한 행위를 일체 금한다.

9. 성묘객들에게 묘소 잔디 보존을 위해 잡초를 제거해 주고 묘봉과 묘봉 주위를 잘 밟아 주기 바란다.

10. 묘소에 비료나 잡초 제거를 위한 약품사용을 금한다.

11. 1994년 9월 20일 전에 소천한 묘소는 매년 관리비 납부에 협력해 주는 것을 권장한다.

12. 묘대 설치를 원할 경우 90년 이후 사망자묘에는 묘대를 무료 제공하고 설치봉사료는 별도이다.

13. 오래된 화장당 비석은 퇴색이 되어 오색으로 비석을 교체할 것을 권유한다(설치비:15만원).

14. 제1동산(기도산)에 있는 묘소를 충현동산으로 이장하는 것을 권유한다.

15. 고인의 유족 중 타교회 목사나 장로가 있어 장례식 집례에 이견이 있을 경우 집례 주도에 관한 논쟁은 피해야 하고 사당과 위도가 전체되어야 하며 충현동산에 안장할 경우에는 하관예배 집례를 본 교회 목사가 하여야 한다.

충현동산을 이용하는 성도와 상호회를 위해서 기도와 권면으로 관심을 가져서는 충현의 식구들을 위해 장례문화 개선에 함께 협력해 갈 것을 다짐한다.

장례 전반 문제와 관련된 충현동산 묘지 이용과 장례절차를 주관하는 상호회 운영을 위해 충현교회는 기독교적 의미가 부여된 제사가 아닌 예매가 될 수 있도록 힘써서 장례식 때에 50% 가까이 찾아오는 불신자를 위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기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기회권으로 발전되어 가기를 바란다. 한편 충현동산은 교회 보조와 찬조 헌금(독자들), 그리고 장례시에 발생하는 유족들의 부담금 및 관리비로 운영되고 있다.

충현동산 및 상호회에서 알려드립니다

1. 충현동산 매장 허락

- 1) 전가족이 동향한 경우
고인이 세례받은 지 6개월이 지났고 충현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한 지 6개월 이상 된 자.
- 2) 고인만 등록한 경우
고인이 세례받은 지 1년이 지났고 충현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한 지 1년 이상 된 자.
- 3) 상가 1, 2, 3호에 부처합할때 당회가 충현동산 매장을 허락한 자.
- 4) 제1동산(기도산)에서 제2동산(충현동산)으로 이장을 원한 경우는 경우
- 5) 현 매장지에 합장을 원하는 경우(합장은 제한없이 허락됨).
- 6) 충현교회 교인으로서 충현동산이 조성되기 전(1973. 1. 14)에 사망한 자의 이장.

2. 충현동산 묘지대금

- 1) 묘지
매장비: 1,200,000 10년 관리비: 300,000 계: 1,500,000
- 2) 기존묘소에 합장할 때
가. 10년 관리비 납부한 묘소
매장비: 1,200,000 10년 관리비: 150,000 계: 1,350,000
나. 10년 관리비 미납 묘소
매장비: 1,200,000 10년 관리비: 450,000 계: 1,650,000
- 다. 제1동산에서 충현동산으로 이장할 때
매장비: 800,000 10년 관리비: 300,000 계: 1,100,000

3. 매장신고

- 1) 구비서류
① 매장신고서 ② 사망진단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묘지사용 승락서 ⑤ 비문
- 2) 상가에서는 교역자가 전달한 소기양식에 의거 상가서류를 충현동산관리소 관리인에게 장례식 당일 전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4. 충현동산 식당운영

- 1) 당 식당에서 밥, 국, 김치를 준비한다(1인당 3,000원).
- 2) 기타는 상가의 형편에 의해 준비한다.
- 3) 식사를 위한 모든 기물은 식당에 준비되어 있다.

5. 조의금 전달

- 1) 관보는 교역자가 전달한다.
- 2) 조의금은 교구장이나 지역장이 전달한다.
- 3) 소망부 회원이 별세했을 때는 소망부 부장이 조의금을 전달한다.

6. 상호회 및 충현동산 연락처

- 상호회 사무실(사목부): 552-7750
- 상호회장, 동산관리부장: 김여순 장로(483-7536, 011-742-8200)
- 동산관리인: 최환식 집사(0347-64-9617, 012-333-9927)
- 실무담당: 오인근 집사(556-2367), 서동식 집사(432-6120)



교 회 소 식

● 알림

1. 장학헌교 / 오늘 1, II, III, IV 주예배 시 드립니다.
2. 성서선지 안내 / 9월 6일(다) 9월 1, II, III, IV 주예배 시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전도위원회 논제총회(다) 정기회 / 9월 8일(다) 18:30, 잠실홀
- 대상 : 각교구 지도, 교구장, 주일총, 주일총 사역팀장
4. 전도위원회 논제총회(다) 정기회 / 9월 6일(다) 주일부대 갈릴리움에서 있습니다.
5. 영성예배 10주년 기념 사전전례회 / 오늘까지 갈릴리움 복도에서 있습니다.
6. 통솔을 돕는 여전도회 회장 월례회 / 9월 7일(월) 11:00 성남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각지의 여전도회 회장은 모두 참석(성남제일교회 ☎ 0342-734-6003).
7. 대제사장(이그나티오)의 비전 / 9월 14일(일) 11:00 성남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각지의 여전도회 회장은 모두 참석(성남제일교회 ☎ 0342-734-6003).
8. 대제사장(이그나티오)의 비전 / 9월 14일(일) 11:00 성남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각지의 여전도회 회장은 모두 참석(성남제일교회 ☎ 0342-734-6003).

● 모임

1. 장로 회보예배 / 9월 1일(다)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2. 안수집회와 월요예배 / 9월 5일(다)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3. 구구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성교관 301호
4. 주일후기도회 / 매주일 15:00-16:30, 사랑방 예배실
5. 성서인문회 목회기도회 / 매월 3일(다) 새벽기도 후, 성서인문회교회실
6. 권사회 전례 월례회 / 오늘 15:00, 갈릴리움

● 남다른 기도

1. 오 한12 / 9월 5일(토) 14:30, 은평구 중산동 체육공원
(박근의 집사 019-251-5380)
2. 미리아 / 3 / 9월 4일(일) 11:00, 사랑방 교사실

● 결혼

1. 이종철(이기은 성도, 김정자 성도의 아들)과 정효숙(박귀원 성도의 딸, 제13교구 / 9월 5일(토) 14:00 복지관

● 별세

1. 한명옥 장로(이봉재 권사 남편, 한승일 전도사 부친, 박정숙 집사 부부, 제13교구 사인전구) / 22일 밤, 24일 장례
2. 이희봉 성도(한현수 성도 모친, 김해정 집사 시모, 제14교구 학산3구역) / 22일 밤, 24일 장례
3. 이원성 성도(이병재 성도 부친, 이기원 성도 모친, 김은정 성도 시모, 제6교구 마천구역) / 24일 밤, 26일 장례
4. 조장희 군(조성수 집사, 서혜덕 집사 아들, 제14교구 목1구역) / 27일 밤, 28일 장례
5. 주소일 전 집사(전 집사) / 27일 밤, 28일 장례

● 주일 전례회 및 헌신

1. 이종철 장로, 홍영민 권사 / 강구구 일원부 719 푸른마을A, 107-1011, 전화: 3411-6419

● 9월 주일 및 수요일 기도 담담

월	일	주일예배 (장로)					수요일예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9	13	최대일	정우현	남신우	유한원	최정현	이계인	민순애
	16	이병철	박종준	이 훈	송원진	장원환	마도현	박정현
	20	김정성	송기우	서동석	정문호	이광호	전용태	신영애
	27	강종호	오정원	김영길	김현재	조진태	조규호	안소현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1388	사광자	2	청년2부	정귀국(2)	1401	김태일	19	대학부	오광호(15)	1413	박성훈	19	고등부	
1389	김봉태	2	청년2부	정귀국(2)	1402	이병철	19	청년1부	이기철(19)	1413	박성훈	19	고등부	
1390	김봉태	3	청년2부	1402	심영진	15	대학부	1414	박광영	19	청년2부	임희준(5)		
1391	함정영	3	바울	함미란(19)	1403	배이원	19	대학부	김지이(5)	1415	최희원	19	청년2부	
1392	이영희	2	청년2부	1404	조진선	19	대학부	1416	이영희	13	청년2부			
1393	김정진	2	고등부	1405	김현기	19	대학부	1417	안현숙	19	청년2부			
1394	오정원	7	청년2부	이병무(6)	1406	신지안	19	대학부	1418	남현준	1	에스디		
1395	김덕애	8	에스디	1407	조혜경	19	대학부	1419	이승희	19	청년1부			
1396	김덕애	8	푸더아	1408	박주은	19	대학부	1420	고경만	5	청년2부	고정원(8)		
1397	정은정	9	청년1부	박옥석(8)	1409	홍리나	19	대학부	1421	이민애	5	청년2부	고정원(8)	
1398	정준호	9	고등부	박옥석(8)	1410	김수지	19	대학부	1422	박수현	6	청년1부		
1398	정준호	9	고등부	박옥석(8)	1411	박기범	19	대학부	1423	김정호	10	청년1부	김신자(4)	
1399	김승아	14	청년1부	1412	박동철	19	청년1부	1424	신순자	13	에스디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친양대사지정장 및 수련회 개최

새로운 사명 깨달은 기회

이 훈(교, 준비위원장)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금년 여름에는 많은 비로 전국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제도약을 소망하며 힘써 진행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수호로 배설시켜나갔다는 한 큰 어려움이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지혜 교회에서 전국 찬양 대제사장 감사 및 수련회를 개최하게 하시고 행한 것들을 통하여 모든 교회에 그 해와 할 일 무엇인지 확인하게 해주셨습니다. 참찬한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고마움과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 다. 또한 8월 21일 수료식을 겸한 금요 집회를 마친 후 수료증서와 기념품을 배부하는 등의 행적이지 않은 일도 다 끝마친 새가족생들이 늦은 시간인데도 귀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서서 그간 수료한 주신 장로님들과 장상님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악수를 나누면서 감동하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지혜들도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본 행사를 준비하였던 준비위원들조차도 위나 어려운 현실임에도 참석자가 예상보다 적게 오리라 생각했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축소해야 할 것까진 생각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나약한 믿음을 일축하시고 예상 인원보다 훨씬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 주셨

습니다. 첫날 개회예에서 새가족들의 눈빛과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고 배움을 갈망하는 모습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참으로 보람된 감사 및 수련회가 되도록 마음 속 깊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음악의 전공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현대 교회의 위기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새가족들과 교회음악의 접촉 속에서 파생되는 교회음악의 세속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생활을 오래 한 중직자들이나 지도자들까지도 교회 부흥과 연관이 어떤 종류의 음악이든 교회인이 원하고 좋아하는 교회 안에서 더 허용하고 전한 찬양곡과 가사에 대한 검증도 안하고 한 단편의 음악만 지식 없이 지내다 보면 음악을 통해 사단의 영이 좌우하는 교회가 되고, 경건의 모양은 갖추어도 하나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한 이때에 이곳에 있었던 찬양대 지도자들에게 교회음악의 본질과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고 찬양 속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재를 제정하고 찬양이 신 재물이 되는 근본적이고 영적력은 교회음악 교육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히 계속 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양대원과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방법보다 근본 원리를

터득해야 된다는 특강을 해 주신 김성관 위임목사님의 열과 성을 다한 강의와 실기 위주의 실질적인 강의와 개인별 지도를 정정해 주신 강사님들과 찬양위원장, 지도목사, 강구구 감독집사, 준비위원들, 실무를 맡은 권영주 집사, 11명의 자원봉사자(주로, 벨, 아현찬양대 솔로리스트들), 8명의 자원봉사 반주자(지휘, 성악 실기수업을 위한), 그리고 여러 불편함을 겪어서도 준비와 진행하는 데 협력해야 할 속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실시하는 행사가 다소 미미한 점들과 불편한 일들이 있었지만 새가족들이 이해하고 양해해 주셔서 준비한 저희들이 오히려 미안한 정도였습니다. 지난날 교회학교 여름수련회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무더운 여름철에 몸을 갹을 수 있는 샤워시설의 미비로 불편함을 겪어서도 준비와 진행하는 데 협력해야 할 속대로 남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년 행사를 토대로 충현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면서 기도로 협력해서 주신 관심을 가지 주신 모든 중년의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찬양위원회와 충현교회, 그리고 금년에 참석한 여러 교회가 되고, 찬양의 도구들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김주의기도 제목

1. [의정원]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육신과 영적인 감사를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2. [충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3. [다 예배순서]를 맡은 모든 일꾼들이 사랑과 평강으로 충만하여 성령감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소서.
4.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히 참여하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설게 하소서.
6. [나라]가 어려운 이때에 힘겹고 고통스러워 방황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하시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믿어 아픈 성도들을 믿음중에 강건케 하셔서 치료하여 주소서.
7. [각종 제반]의 수해를 당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충성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웃의 슬픔을 다 슬픔처럼 함께 나누며 서로 돕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8.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다을 주일을 준비하면서 버려야 할 죄를 버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을 결심하게 하소서.

● 원로목사

● 위임목사

● 김성관

● 부목사

● 이훈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

● 김성관